

-(으)ㄴ/는 척하다

~인 척하다 — 거짓으로 꾸밈

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그런 것처럼 꾸민다는 뜻입니다. 관형사형 체계를 따르므로 동사와 형용사의 형태가 다릅니다.

■ 결합 방법

품사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 척하다	자다 → 자는 척했어요
동사, 완료	-(으)ㄴ 척하다	먹다 → 먹은 척했어요
형용사	-(으)ㄴ 척하다	괜찮다 → 괜찮은 척했어요
이다	-인 척하다	학생인 척했어요
르로 끝남	ㄹ 탈락	알다 → 아는 척했어요
동격어	-(으)ㄴ/는 체하다	아는 체하다

■ 언제 쓰나요

동사는 현재에는 -는 척하다, 완료된 행동에는 -(으)ㄴ 척하다를 씁니다. 형용사는 -(으)ㄴ 척하다를 씁니다. 이다는 -인 척하다가 됩니다. 르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합니다.

의도적으로 꾸미는 것이고 말하는 사람도 그것이 거짓임을 압니다: 자는 척했어요는 실제로는 깨어 있으면서 자는 연기를 했다는 뜻입니다. 이는 인상을 전할 뿐인 -아/어 보이다와 전혀 다릅니다.

같은 뜻의 체하다는 완전한 동격어이며 조금 더 격식 있는 말입니다: 아는 체하다, 잘난 체하다. 이 두 가지는 잘난 척을 뜻하는 관용 표현으로 굳어졌습니다.

상대가 거짓을 꾸민다는 뜻이 되므로,윗사람에 대해 쓰면 강한 비난이 됩니다.

■ 예문

- 1 피곤해서 자는 척했어요.
- 2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.
- 3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많이 아팠어요.
- 4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지나갔어요.
- 5 그 사람은 늘 잘난 척해요.
- 6 처음 보는 척했지만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.

■ 비교

-아/어 보이다
-아/어 보이다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전하고, 척하다는 그 사람이 일부러 꾸미고 있다는 뜻입니다. 하나는 관찰이고 다른 하나는 비난입니다.
괜찮아 보여요. (괜찮아 보임) / 괜찮은 척해요. (괜찮은 척함)

-(으)ㄴ/는 것 같다
것 같다는 자기 판단을 완곡하게 하는 말이고, 척하다는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 주장하는 말입니다.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.
자는 것 같아요. (자고 있는 것 같음) / 자는 척해요. (자는 척하고 있음)

-(으)ㄴ/는 체하다
명사만 다른 같은 구문입니다. 체하다가 조금 더 격식 있으며, 잘난 체하다와 아는 체하다를 가장 자주 접하게 됩니다.
아는 척하다 / 아는 체하다

■ 주의

- ✗ **괜찮은 척했어요.**
○ **괜찮은 척했어요.**
괜찮다는 형용사이므로 -(으)ㄴ을 씁니다. -는은 동사에 씁니다.
- ✗ **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.**
○ **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.**
르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사형 체계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**부장님이 모르는 척하시네요.**
○ **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**
척하다는 상대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말입니다. 윗사람에게 쓰면 심각한 비난이 되므로 대신 것 같다고 완곡하게 말하세요.